

# 정화의 작업자들



## 세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onto, ON M3C 1W1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형제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39 호

10 월 형제회 소식

2008 년 10 월 25 일

###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사도 바오로와 초기 교회들' 감상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 시 20 분 - 친교

###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11 월 29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지난 10/10~10/12 까지 실시된 연례피정은 김재섭 신부님과 리따 수녀님의 지도로 하느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성령 충만하고 편안한 좋은 피정 이 되었습니다. 지도 신부님과 영적보조자 리따 수녀님 그리고 잔꽃송이 합창단을 비롯한 피정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피정 중에 입회식(10/11)과 종신 서약식(10/12)이 거행되었습니다.

**입회자(13 명):** 김연재(아그네스), 송경숙(스콜라스티카), 조정순(미카엘라), 오귀주(카타리나), 이두희(그레고리오), 이은자(다미아나), 최영(릿다), 이숙(비비안나), 양정애(벨라렛다), 성향경(비비안나), 원순자(안나), 윤미숙(글라라), 백영숙(소피아)

**서약자(7 명):** 이명자(레지나), 원명옥(마리아), 송정재(글라라), 이진국(베네딕도), 송완호(미카엘), 송혜경(젼마), 홍현주(엘리사벳)  
입회와 종신 서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축하해주시고, 앞으로 형제애를 실천하며 형제회 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10/3, St. Bonaventure Church 에서 거행된 사부님 추도식에 우리 형제회에서 20 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종철(마오로) 형제님의 칠순 생신(10/5)을 축하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달 11/22(토), 한맘 성당 요셉회 점심식사를 우리 형제회에서 접대하오니 식사 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회계 보고

2008 년 9 월 30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335.31	\$9,120.00	\$321.74	\$15,133.57
전교 후원금	\$5,055.43	\$340.00	0	\$5,395.43
도서 구입	\$828.83	\$710.00	0	\$1,538.83

### 종신 서약자 소감과 결심

금번 연례 피정 기간 중 10/12, 종신 서약식을 마친 7 명의 형제, 자매님들의 소감과 결심 사항을 발췌, 게재하오니 결심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약을 함으로써 가난과 기쁨과 회개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노력하겠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 참례, 이웃 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자 레지나)

London 에서 송 글라라 자매와 함께 다닌지 3 년이 되어 종신 서약을 하게 됨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 드리며 재속회 회원들과 형제애를 나누며 하느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 (Homeless, Drug Abuse …)을 위해서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 (원명옥 마리아)

저 혼자서의 공으로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서약한 회원이 됨으로써 형제회 안에서 형제들과 더불어 재속 생활인으로서 복음적 생활을 실천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송정재 글라라)

피정 마지막 날(10/12), 화창한 봄날과도 같은 날씨와 단풍진 가을 풍경이 인상 깊었던 주일날 오후. 나에게 그날 그 파견 미사는 큰 의미를 뜻하였습니다. 사부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파견되어 재속 프란치스칸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 중의 아름다운 성가와 웅장한 섹스폰 연주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의 눈물… 이런 기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피정을 지도하신 신부님과 수녀님,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한 가족 같은 형제애 그 자체 분위기는 이미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 (이진국 베네딕도)

피정 기간 중에 나 자신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날들, 그 중에는 어렵고 슬픈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고 역경을 헤쳐 나가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지난 3 년간의 공부가 앞으로 제가 프란치스칸 으로서 나아갈 길의 시발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부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작은 이가 되어 하느님

께 다가가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 거듭나고자 이번 서약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송완호 미카엘)

지난 3 년간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 살고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부가 재미있었고 매달 하는 과제는 저의 좋지 않은 생각과 습관을 반성하고 바꾸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같이 공부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나눔을 함으로써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보람되고 소중한 3 년이었습니다. 저는 서약한 후, 저의 결심을 목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매달 월례회에 참석하여 형제애를 나누고 수녀님의 영성 강의를 듣겠습니다. 성무일도를 매일 바치며 기도생활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3 덕인 가난, 순명, 정결을 나의 실생활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형제애를 나의 마음과 몸에 항상 지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항상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회개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부님이 주신 권고 말씀을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생활을 잘 하고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프란치스칸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서약 생활을 하려는 결심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 드립니다.

#### (송혜경 쥘마)

2008 년 10 월 12 일, 이제 이날은 제 생애에서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요한 비안네 형제회, 이제 이곳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할 제 집이요 가족입니다. 성모님을 우리회의 보호자로 세우신 사부님처럼 작은 일도 언제나 성모님께 의논하며 저 자신을 겸손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형제회의 많은 선배님을 본받고 제 자신만의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장점을 살려 형제회의 모범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 (홍현주 엘리사벳)